

저는 부산에서 스칼라그래피라는 웨딩 영상 촬영업을 부부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예판에 참여하여 부부가 모두 각자 구입하여 2대의 R5M2를 사용하고 있는 도중 R5, R6M2 사용 시 없었던 치명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1번, 2번 사례

R5M2, 70-200, 4K 30P FINE

렌즈 IS ON, BODY IS ON

주변 조도 보정 ON, 왜곡 보정 OFF, 초점브리딩 보정 OFF, 색수차 보정 ON, 회절 보정 OFF

3번 사례

R5M2, 70-200, 4K 고속 프레임

렌즈 IS ON, BODY IS ON

주변 조도 보정 ON, 왜곡 보정 ON, 초점브리딩 보정 ON, 색수차 보정 ON, 회절 보정 ON

4번 사례

R5M2, 70-200, 4K 30P FINE

렌즈 IS ON, BODY IS ON

주변 조도 보정 ON, 왜곡 보정 ON, 초점브리딩 보정 ON, 색수차 보정 ON, 회절 보정 ON

틸팅, 패닝 중 진행 방향으로 (상하좌우 모두) 확확 튀는 움직임이 발생함.

R5와 비교 시 렌즈 수차 보정에서 추가된 기능은 초점 브리딩 보정 하나밖에 없는데,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는지 모르겠음.

우리 팀 부부 두 명 모두 R5M2를 사용하고 있고, 모두 이런 현상 발생, 렌즈는 각각 RF15-35, RF70-200 F2.8, RF50 F1.2를 사용.

IS가 없는 렌즈인 50mm F1.2에서도 발생하기 때문에 렌즈 IS의 경우의 수는 제외 하는 게 맞다고 봄

R5에서는 이런 현상이 없었는데 역지로 인물을 프레임으로 끌어당기는 듯한? 땡기는 듯한? 움직임이 발생하는 이유를 모르겠음

또한 저희가 운영하는 다른 웨딩 영상 브랜드에 R5M2를 사용하고 있는 감독님이 한 분 더 있으신데, 동일한 증상을 보이고 있으며,

그 감독님께선 부산 캐논 센터에 방문하여 해당 증상에 관해 설명했고 영상까지 촬영해 가서 보여드렸다고 했으니

부산 캐논 센터에 연락을 취해보시면 저희가 첨부하는 영상의 현상 대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저희는 캐논 센터에 갈 시간적 여유가 없으며, 왜 가야 하는지 이유를 아예 모르겠습니다.

이런 리포트를 작성하는 시간조차 상당히 아까우며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부부는 매주 웨딩촬영을 적게는 2개 많게는 4번은 촬영하고 있습니다.
피사체(입장, 퇴장)와 촬영자(틸팅, 패닝)의 가장 많은 움직임이 있는 가장 중요한 순간에
저런 말도 안 되는 현상이 발생하는 것은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시그니엘 행사에 초대받아서 가보니, 사전에 체험단 비슷하게 미리 사용해 본 사람
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보고 되지 않았습니까? 저희만 발생하는 건지 궁금합니다.